■ 민족문화연구 제83호(2019.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93-114.
http://doi.org/10.17948/kcs.2019..83.93

【특집1: 조선시대 유서(類書)의 지식학적 검토】

조선시대 백과사전 속 '단군'의 표상*

김윤경(金允景)**

목 차

1. 단군기원설과 단군요청설
2. 『대동운부군옥』 속 단군
3. 『지봉유설』과 『성호사설』 속 단군
4. 『오주연문장전산고』 속 단군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4종의 조선의 백과사전—『대동운부군옥』, 『지봉유설』, 『성호사설』, 『오주연문장전산고』—을 중심으로 당대 지식인들의 '단군'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단군' 관련 논의들의 특징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작업은 '백과사전'이라는 당대의 보편 지식 안에서 '단군'이 어떠한 이미지로 상상되고 소비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기회이며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단군'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하나의 접근이 될 수도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6세기 출간된 『대동운부군옥』의 '단군'은 중국과는 다른 독립국가로서의 자의식을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임진왜란 이후 출간된 백과사전보다 임란 이전의 『대동운부군옥』은 중국에 요임금이 있다면 우리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6-KFR-1230007).
** 인천대 윤리교육과 조교수.

는 단군이 있다는 문명국가로서의 강한 자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둘째, 이수광의 『지봉유설』이 단군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계기를 주고 단군시대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준다면 이익의 『성호사설』은 퇴계와 조식을 최고의 스승으로 간주하는 성리학자가 단군의 시대를 문명과 미개의 이중적 태도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단군은 단군시대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자조선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비로소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小中華論'을 펼치기 위해 활용되었다. 이상의 연구는 '민족' 개념의 구성이 근대의 산물이라는 전제 아래, '민족적 위기'가 '단군'에 대한 숭배를 강화시키고, 논의를 확대시켰다고 하는 통행 시각을 새롭게 반성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제어: 유서(類書), 단군, 민족주의,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지봉유설(芝峯類說)』, 『성호사설(星湖僿說)』,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1. 단군기원설과 단군요청설

홉스봄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인이 느낄 통일 결핍을 논하면서, 통일 민족국가로서의 독일역사가 1871년 이후부터라면, 한국은 단일 국가의 역사・전통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언급한다.[1] 오늘날 남북한의 평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의 기반에는 동일한 언어와 역사 문화를 공유한다는 인식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단군'의 후예라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는 20세기 이후 한반도의 주요한 민족주의 요소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이 논문은 조선의 단군 인식에 대한 논의를 조선의 백과사전 즉 유서를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단군 관련된 일반적인 시각을 재고찰하고자 한다. 단군 관련한 통행 시각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단군에 대한 인식' 혹은 '단군과 민족주의', '단군과 민족의 정체성' 논의 등이다.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단군'은 민족 혹은 민족주의 관련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신화・종교・정치・사상・사회・역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논의에 앞서 필자는 단군 관련 일반적 논의 가운데 대표적 논견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

1) E. J.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The Press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1990;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강명세 역, 창비, 1993, 3-5면.

그 하나는 단군기원설이다. 즉 단군을 민족의 기원에 두고 그 진위 여부를 사료와 사적을 통해 증명해 나가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를 '단군기원설'이라 하겠다.[2] 다른 하나는 20세기 민족적 위기상황에서 사회진화론 등의 영향을 받아 단군이 새롭게 구성되었다는 견해로 이를 '단군요청설'이라 하겠다.[3] 전자의 경우 사료와 사적이 항상 진위 여부에 휩싸인다면, 후자의 경우는 서구의 민족주의 이론을 지역·역사적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무비판적으로 대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두 설 '단군기원설'과 '단군요청설'은 모두 소략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 단군기원설이 『환단고기』, 『규원사화』 등을 중심으로 위서 논쟁이 있는 사료를 중심으로 핵심논의를 탐구한다면, 단군요청설은 서유럽의 상황에서 구성한 민족주의 모델을 단장취의 해서 동아시아의 단일국가로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 이입하려 한다는 점이다.[4] 더구나 이 두 설 모두 조선시대의 '단군 인식'에 대해서는 도

2) 단군기원설은 종교적으로는 '대종교'의 중심교리를 예로 들 수 있고, 학문적으로는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종로서원, 1948(신문에 연재된 시기는 1930년대)을 그 출발점으로 한다. 단군 기원의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로는 안호상을 들 수 있다. 안호상은 1948년 이승만 정부에서 초대 문교부장관을 지낸 학자이자 정치가로서 단군을 민족 공동의 출발점으로 삼고 단군 자손으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민족집단의 통합과 발전을 주장한다. 안호상, 『배달 동이겨레의 문화와 역사』, 배달문화연구원, 1971. 이러한 사유는 이후 전체주의와 국가주의 혹은 유사역사학이라고 비판 받았으나 이에 대해 단군민족주의를 매도하기보다는 공동체의 통합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상적 대안으로 보자는 연구도 있다. 정영훈, 「안호상과 일민주의의 단군민족주의」, 『단군학연구』 제38호, 단군학회, 2018.

3) 일제 강점기의 민족적 위기 상황이 '단군'을 요청했다는 견해는 단군 중심의 고대사 기술을 근대의 사회진화론과 민족족의의 영향 관계에서 고찰하는 시각이다. 조동걸,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 연구』, 지식산업사, 1989; 신용하, 『신채호의 사회사상연구』, 나남, 2004. 이후, 근래의 '민족주의' 연구는 어네스트 겔너(Ernest Gellner), 앤서니 스미스(Anthony Smith), 홉스봄(E. Hobsbawm) 등의 관점을 계승해 '한국적 민족주의'와 '단군의 탄생'을 고찰한 연구들이다. 최근에는 리아 그린펠드의 민족주의 연구성과를 수용한 연구들이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김인중은 그린펠드의 민족주의 유형론을 한국에 적용하면서 한국의 단군은 종족적 민족주의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영국과 미국보다는 독일과 러시아의 민족주의에 가까운, 배타성이 강한 민족주의라고 규정하고 이는 제국주의의 위협(일본)에 대응해 탄생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Liah Greenfeld,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김인중, 「민족주의의 개념」, 『프랑스사연구』 제22호, 한국프랑스사학회, 2010, 315면.

4) 이러한 연구들은 대다수 서구 민족주의와 한국 '민족주의'를 비교하는데, 1905년 한국의 민족주의는 과거의 중화주의에서 탈피하는 동시에 현재의 일본에 저항할 수 있는 특수한 민족 개념을 고민했고, 그 결과가 근대성이나 서구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은 민족의 내적 본질 즉 혼을 지닌 존재

식적 수준의 논의에 머무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단군조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주요한 역사적 흐름이었다고 규정하거나, 조선시대는 '기자조선'이 중심이었다는 확증 등이다. 이러한 두 연구 경향의 거대한 거리감 속에서 '단군'에 대한 논의는 실상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중심적인 연구가 완료된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한다.

본 논문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단군에 대한 논의를 민족주의가 강화되었던 20세기 이전의 시대, 조선시대 임란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단군'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의 유서(類書), 즉 백과사전 —『대동운부군옥』, 『지봉유설』, 『성호사설』, 『오주연문장전산고』—을 중심으로 당대 사회에서 '단군'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규정 그리고 논의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5]

이상의 연구는 기존의 '학술영역' 안에 산재하는 단군에 관한 몇 가지 고정된 시각에 대한 의문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군과 관련한 확고한 통행 시각 가운데 외세의 침입 시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확대되고 이 시기 '단군신앙'이 확대되었다는 논리가 있다. 즉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가 '단군신앙'을 촉발하였다는 추론이다. 예컨대, 조선후기 도교 도맥서인 『해동전도록』과 『해동이적』의 비교에서도 '임진왜란'이 기폭제가 되어 『해동전도록』과 달리 『해동이적』에 '단군'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해석 등이 이러한 견해 아래에서 등장한다. 또한 역사서도 임란 이후 안정복의 『동사강목』 같이 단군을 기술하는 역사서가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단군기원설과 단군요청설의 연구 경향 아래 강조되는 통행적 시각

를 상정했다는 것이다.

5) 김영선, 「한국 유서의 서지학적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9에 따르면 조선시대 유서(類書)는 총 146종이고 이 모든 유서는 개인의 찬술이며, 단편으로 편찬된 것이 46%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30책 이상의 분량을 가진 것은 8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유서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4권의 유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조선시대 유서 가운데, 임란 이전의 유서 혹은 조선시대 최초의 유서라고 불리는 『대동운부군옥』, 조선 후기 지식인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읽힌 유서로 평가받는 『지봉유설』, 실학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유서인 『성호사설』(30권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유서 가운데 거대한 양(60권 60책)의 지식체계를 보여주는 『오주연문장전산고』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에 대한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조선의 백과사전을 통해 조선시대 '단군'의 지식 정보를 도출하고 당대 드러난 단군의 위상을 탐구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조선시대 단군에 대한 지식 정보를 명확하게 고증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2.『대동운부군옥』속 단군

임란 이전의 단군 지식정보를 알 수 있는 사전이『대동운부군옥』이다. 임란이 일어나기 직전(1589년) 권문해가 편찬한 이 책은 조선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칭송된다. 원나라 陰時夫의『운부군옥』이 중국역사의 기록을 수록한 것이라면『대동운부군옥』은 우리나라를 '大東'이라고 칭하고 우리역사의 기록을 수록한 운별 사전이다. 이 사전은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의 문화 역사 풍속 등을 방대하게 수집한 백과사전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데 임란 이전 당대의 지식지형도를 고찰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이다.

이 사전에서 '단군'은 30여 차례 이상 인용된다. 그 인용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가 '왕(君)', '즉위(立)', '천자의 지위(祚)' 등 왕과 왕의 지위, 국가의 창건과 관련된 인용이다. 둘째는 '나무(樹)', '주변(邊)', '동굴(穴)' 등 단군고사와 관련된 운자들에서 단군을 인용하는 것이다. 셋째는 추(追)와 미(未) 등 단군 고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단군을 인용한 경우이다.

첫째 왕과 왕의 지위, 국가의 창건과 관련된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요임금과 더불어 나란히 즉위하였다(與堯並立)'는 단군의 고사로 무진년의 일이다.(『고려사』 인용)[6]

B. 동방에는 시초에 임금이 없었는데, 신인이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왔다. 요임금과 나란히 즉위하여 스스로 단군이라 하였다. 단군은 신령스럽고 지혜가 있었다.(『고기』 인용)[7]

C. 앞서서 단군이 나라를 열었고, 뒤에 기자가 봉함을 받았다.(『동국여지승람』 序 인용)[8]

---

6) 權文海,『大東韻府群玉』20권 4장 24절. "立: 與堯並立, 檀君事見戊辰. [高麗史]"

7) 權文海,『大東韻府群玉』4권 2장 29절. "君: 檀君, 東方初無君長, 有神人降于太伯山, 檀樹下, 與堯幷立, 自號, 神而有智. [古記]"

위의 인용은 모두 '君', '立', '祚'와 관련된 운자의 용례로 단군을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임금이며, 새로운 국가의 개창자이며 요임금과 나란히 즉위했다는 사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의 요소는 김종서와 정인지가 세종의 명을 받아 1449년에 편찬하기 시작해서 1451년에 완성한 『고려사』(A), 일연의 『삼국유사』(B), 성종의 명을 받아 김종직이 1481년에 1차적으로 완성한 조선 전기의 대표적 관찬 지리서 『동국여지승람』(C)에서 인용되었다.

둘째는 '나무(樹)', '주변(邊)', '동굴(穴)' 등 단군고사와 관련된 운자들에서 단군을 인용하는 것이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옛날 어떤 신인이 태백산에서 내려왔는데 단군이 되었다.(『고기』 인용)[9]
B. 까마득한 옛날 단군이 신단수 곁으로 내려왔다.(『응제시』 인용)[10]
C. 곰과 호랑이가 함께 굴에 있었다 (…) 환웅이 인간으로 변화하여 곰과 호랑이에게 영약을 주어 먹게 하였는데, 호랑이는 먹었지만 금기를 지키지 못했고, 곰은 21일 동안 금기를 지켜서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여 단군을 잉태하여 낳았다.(『응제시』 인용)[11]

위의 인용을 보면 '왕'과 '국가'와 같은 직접적인 단군고사 내용이 아니라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변적인 용어들 즉 '樹', '邊', '穴'과 같은 사전적 용례를 위해서 단군을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나무(樹)와 관련된 첫 번째 용례가 '神檀樹'라는 점도 흥미롭다. 인용되는 책들은 앞서 인용한 『고기』와 더불어 양촌 권근이 명나라 사신으로 가면서 황제의 명을 받아 지은 『應制詩』가 있다.

셋째는 '追', '末' 등과 같이 단군과 관련된 직간접적 중심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군을 인용한 경우이다. 사실 '君'과 '樹', '穴' 등은 단군고사를 인용할 충분한 용어적 배경이 있다. 그런데 '追', '末' 등은 단군고사의 내

8) 權文海, 『大東韻府群玉』 14권 1장 86절. "祚: 檀君啓祚, 於前箕子受封於後. [輿地序]"
9) 權文海, 『大東韻府群玉』 14권 1장 14절. "樹: 生植之總名, 檀樹, 古有神人, 降於太伯山, 下是爲檀君. [古紀]"
10) 權文海, 『大東韻府群玉』 5권 1장 40절. "邊: 樹邊, 聞說洪荒日檀君降. [陽村應製詩]"
11) 權文海, 『大東韻府群玉』 19권 5장 22절. "穴: 熊虎同穴, 古紀太伯山神檀下, 有而居常祈于天王桓雄願化爲人, 雄遣靈藥食之, 虎食而不能忌, 熊忌三七日, 化爲女身, 因有孕生檀君. [應製詩註]"

용에서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군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까마득한 시절에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동문선』 인용)[12]
B. 을미월 단군은 아사달의 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외기』 인용)[13]

위의 인용을 보면, '追', '末'와 같이 단군신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운자를 단군의 고사와 관련하여 용례를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인용되는 서적은 서거정 등이 성종의 명으로 1478년에 편찬한 『동문선』으로 또한 서거정 등이 1485년에 편찬한 『동국통감』의 『외기』를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요컨대, 『대동운부군옥』이 인용하고 있는 단군 관련 정보의 세 가지 경향을 통해 임란 이전 일반적 지식으로서의 '단군'에 대한 지식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단군은 요임금과 동일한 시기 나라를 세운 우리나라(동방) 최초의 임금이며, 환웅과 웅녀의 아들이고, 신령스럽고 지혜로웠으며, 아사달의 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는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삼국유사』의 내용과 다른 점이 없다. 그러나 『대동운부군옥』의 단군 용례는 당대의 대표적 사전의 용례로서 '단군고사'가 적극적으로 쓰였다는 지점을 보여준다. 더구나 단군고사와 관련이 없는 운자의 용례에서도 '단군고사'가 직접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흥미롭다. 둘째는 단지 '단군고사'를 인용하는 데 있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인용하기보다는 조선 전기의 편찬된 역사서와 지리서 그리고 명나라 사신으로 가서 황제 앞에서 지은 『응제시』를 인용했다는 점은 그 의미가 크다. 단일국가로서의 의식이 명확하고 그것을 '단군'이라는 표상으로 증명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셋째 이러한 지점은 '단군요청설'의 주요한 통행적 근거 가운데 하나인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단군'에 대한 요청이 컸다는 해석에 의문을 제시한다. 『대동운부군옥』에 단군 혹은 단군고사를 인용하기 위해 제시되는 서적의 방대함과 그 인용 서적이

12) 權文海, 『大東韻府群玉』 2권 1장 139절. "追: 逐也. 隨也. 鴻荒莫追, 檀君立國. [文選序]"
13) 權文海, 『大東韻府群玉』 13권 5장 1절. "武丁乙未, 檀君至商八年, 入阿斯達山爲神. [外紀]"

제시하는 특징은 조선은 '중국'과는 다르게 중국에 요임금이 있었다면 조선은 단군이 있었다는 것으로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 자의식의 표명이다. 이러한 지점은 조선 전기 '동아시아' 문명국가로서의 자의식이 투영되었다고 볼 지점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3. 『지봉유설』과 『성호사설』 속 단군

임진왜란 이후 1614년 李睟光이 편찬한 『지봉유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천주실의』 '교황' 등 서구 문명에 대한 소개이다. 이 책에서 '단군'에 대한 논의는 10여 차례 등장한다. 중심적 인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단군의 역사에 대한 언급이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가 긴 것을 설명하면서 단군시대가 1,048년이라고 기록하고, 단군 원년 무진년부터 조선 태조까지가 3,785년이라고 언급한다.[14] 이 기록은 郡道部의 「帝王」 편에 등장한다. 이 편은 전설적 제왕들의 치세 기간을 기록하는 내용이다. 둘째는 단군의 치세 지역에 대한 언급이다. 단군의 시대, 수도가 평양이었고[15], 왕검성이 있었음을 『동국여지승람』을 인용하여 밝힌다. 이 밖에 사마천의 『사기』에 '王儉'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말한다.[16] 좀 더 실증적인 기준을 가지고 단군을 고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는 단군시대에 대한 자부심이다.

> 『논어』에, "공자가 九夷에 살고자 하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古史를 고찰하여 보니, "東方에 아홉 종류의 오랑캐가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君長이 없더니 檀君이 처음으로 나라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대체로 공자가 살아 있던 세상은 바로 우리나라 箕王의 중엽인데, 九夷라는 일컬음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 같다. 또 東夷에 살고 싶다고 한 것은 어찌 우리나라의 西海가 齊나라·魯나라와 서로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겠는가.[17]

14) 李睟光, 「帝王」, 『芝峯類說』 3 郡道部. "自唐堯元年甲辰, 至法武元年戊申, 總三千七百八十五歲. 檀君元年戊辰, 至我太祖元年壬申, 亦三千七百八十五歲 (…) 檀君一千四十八年, 箕子訖馬韓一千七十一年."

15) 李睟光, 「國都」, 『芝峯類說』 2 諸國部.

16) 李睟光, 「本國」, 『芝峯類說』 2 諸國部. "東史, 衛滿據王儉城, 註王儉城今平壤, 古仙人王儉宅也. 輿地勝覽云古記, 檀君名王. 馬史 作王險, 未知孰是."

이수광은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九夷를 조선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壽夭」라는 편에서 세조 때 洪裕孫이라는 사람이 전생에 단군의 무진년에 태어났었다는 시를 소개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단군은 나라의 시초이자 정확한 치세의 영역을 지니고 있었으며, 공자가 살고 싶을 정도로 문화가 발달한 곳으로 존숭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 다루어지는 단군은 『대동운부군옥』처럼 이미 일반적인 단군고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장들은 없다. 그러나 실제적 정치가 행해진 시대로 인식하고, 실제적 정치가 행해진 영역을 구체화하며, 동방의 문명국가로서의 자부심을 '단군'을 통해 투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드러나는 동방 문명국가로서의 자부심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익(1681-1763)의 『성호사설』은 『지봉유설』을 이어받아 천지, 만물, 인사, 경사, 시문을 중심으로 3000여 항목의 내용을 싣고 있다. 원시유학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 아래 사회제도의 개혁과 서양기술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성호사설』에서 '단군'이 인용된 항목은 25여 회이다. 『성호사설』의 두드러진 단군 이해의 특징은 첫째, 단군시대에 대한 실증적 태도이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나는 먼 조상에 대해 신성하다는 이야기도 다 믿을 필요가 없고 국사에 전하는 허황하고 괴상한 말도 역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18]는 견지를 피력한다. 단군고사와 관련해서도 삼성사(三聖祠), 즉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시는 사당에 대한 글의 대부분을 '단군고사'를 비판하는 부분으로 할애한다.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들면 "단군이 천신의 아들이고 해모수도 천제의 아들이라 한다면 하늘에 두 신(神)이 있단 말인가? 그 황당무계하여 믿지 못할 것이 이와 같다."라고 언급하고, 『고려사』를 쓴 金寬毅 같은 자들이 허무맹랑한 태도로 이속(夷俗)을 뒤섞어 채집하여 역사를 저작했다고 비판한다.[19] 그리고 우리가 다스렸던 강역에 대해서 말할 때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17) 李睟光, 「論語」, 『芝峯類說』 6 經書部 2. "論語子欲居九夷, 按東史曰, 東方有九種夷. 初無君長, 檀君始號朝鮮. 蓋孔子之世, 乃箕王中葉, 九夷之稱尙存耳. 且欲居夷者, 豈非我國之西海與齊魯相近故耶."
18) 李瀷, 「高金二姓」, 『星湖僿說』 22 經史門. "余故曰, 其遠祖於聖神, 都未必信, 而國史所傳, 亦荒悖可廢."
19) 李瀷, 「三聖祠」, 『星湖僿說』 26 經史門.

취하는데 요동지방의 경계에 대한 논의에서 이익은 단군 기자의 시대는 뚜렷한 기록이 없어서 이를 고증할 방법이 없다고 아쉬워한다.[20]

그리고 둘째는 단군의 시대가 중화 문명의 개화를 입었다는 관점이다. 그는 「檀箕疆域」에서 『漢書地理志』에서 말하는 '幽州'가 아마도 오늘날의 요양과 심양 땅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은 단군의 영토로 이후 기자가 나라를 세웠다고 말한다.

> 단군시대에 벌써 순(舜)의 통치권 내에 들어간 것이니, 우리나라가 혼돈의 사회에서 하(夏)문화를 받아들인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 순도 본시는 동이족이었으니, 저풍(諸馮)과 부하(負夏)는 모두 동방 9개 종족 중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 요순시대부터 중화문명의 내지와 같이 다루어 왔고 단군・기자, 백이(伯夷)・숙제(叔齊)의 교화가 이루어졌으니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것이 여기만 한 곳이 없었다.[21]

단군의 문화를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시대로 바라보는 것은 「東方人文」에서도 동일하다. "단군시대는 원시적이어서 문화가 개척되지 못했고 천백여 년을 지나서 기자가 동쪽 지방에 봉함을 받게 되면서 암흑이 걷혀졌으나, 그것도 한강 이남까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라고[22] 보았다. 이후 조선이 창건되면서 비로소 문화가 열렸고, 퇴계와 남명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문화가 절정에 달했다는 것이다.[23] 이러한 지점은 성리학자로서의 자부심이 '단군'에 대한 견해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단군의 시대를 유교의 유토피아 즉 '요순시대'에 편입해서 보려는 태도이다. 이익이 단군을 바라보는 시각은 '문명과 야만'의 모호한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이익의 『성호사설』에서 단군과 관련된 문제의식 가운데 중심

---

20) 李瀷, 「遼界始末」, 『星湖僿說』 3 天地門.

21) 李瀷, 「檀箕疆域」, 『星湖僿說』 1 天地門. "檀君亦必在虞廷風化之內, 而東邦之變夷為夏乆矣. 舜本東夷之人, 則諸馮負夏亦必九夷之中也 (…) 又在其中自堯舜之世, 視作內服閱檀箕夷齊之風化, 聲教所迄, 莫有此若也."

22) 李瀷, 「東方人文」, 『星湖僿說』 1 天地門. "檀君之世, 鴻濛未判歷千有餘年, 至箕子東封, 天荒始破不及於漢水以南."

23) 李瀷, 「東方人文」, 『星湖僿說』 1 天地門. "聖朝建極, 人文始闡, 中世以後, 退溪生於小白之下, 南冥生於頭流之東, 皆嶺南之地上, 道尚仁下道主義, 儒化氣酋如海濶山高於是乎. 文明之極矣."

은 순이 12개의 주를 창설했는데, 그 가운데 단군의 치세 시대가 그리고 치세 영역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이고 이를 고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따라서 그는 백이가 紂왕을 피해서 북쪽 바닷가에 있었다고 하는 그 동북쪽이 우리나라일 것이라고 말한다. 혹은 순의 12개의 주 가운데 幷州와 營州가 우리나라일 것이라고 추측한다.[24]

> 우리나라의 문화는 기자 이전에 벌써 이를 개척한 인물이[순임금]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백이는 이 땅을 봉해서 받은 것이 아니요, 단군(檀君)의 왕조시대에 한동안 와서 기류한 데 불과하였다. 아마 처음에 단군이 해변에서 나라를 건설한 이래 그 인후하고 착한 기풍이 역대로 변하지 않고 전승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에 몸을 의지했다가 문왕(文王)이 늙은이를 잘 대우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서쪽으로 걸어서 주(周)에 돌아간 것일 듯하다. 이것은 모두 역사의 기록에서 빠뜨린 것이므로 기록해 둔다.[25]

위의 인용문은 중화문화에 편입하고 싶은 조선 중기 성리학자의 역사의식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중화문명의 개화를 입은 원인은 다른 오랑캐들과 달리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전개된다. 여기서 묘한 단군시대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드러난다. 하나가 단군시대의 미개한 문화가 순임금의 덕화 즉 중화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라면 다른 하나는 우리의 고대 문화가 인후하고 착한 기풍이 이미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기풍이 있었으므로 순도 동이 사람이고,[26] 일찍부터 문명의 개화를 행했다는 관점이다. 이 둘의 주장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이다. 그러나 『성호사설』 전체에서는 이 두 관점이 여러 차례 교묘하게 혼용된다.

---

24) 李瀷, 「幷營」, 『星湖僿說』 1 天地門; 「檀箕」, 『星湖僿說』 23 經史門. 이 두 편 말고도 단군을 이야기한 다양한 편에서 동일한 논리가 반복된다.

25) 李瀷, 「幷營」, 『星湖僿說』 1 天地門. "東方風化, 箕子之前, 已有人矣. 然伯夷非受封, 不過檀君之世一時寓居意者. 其始聞檀君闢國海上, 有仁賢之風傳世不替, 故以身歸焉, 既而聞文王善養老, 復西走至周歟. 此皆史氏之所遺, 故錄之."

26) 李瀷, 「檀箕」, 『星湖僿說』 23 經史門. "순은 諸馮에서 탄생했는데, 東夷사람이다. 저풍이란 지대는 요심(遼瀋)과 서로 가깝게 닿았던 모양이다."와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이 말은 순이 동이사람이고, 그 지역이 요동반도라는 것이다.

> 단군(檀君)은 백성을 가르칠 때 머리를 땋게 하고 蓋首를 만들어 쓰도록 하였다고 했는데, 이 개수란 것은 머리에 씌우는 갓이다. 단군은 堯와 같은 시대 임금이었다. 舜을 거쳐 禹에게 이르자 순이 다스리던 12주를 더 넓히게 되었다. 幽州 부근에 있는 朝鮮 지대를 병합하여 요동 전체를 차지하였다. 국경이 서로 가깝게 되자 王化가 동쪽으로 퍼져서 중국의 중심과 똑같아졌다.[27]

위의 인용은 이익의 관점을 잘 요약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단군 이래로 나름의 문명화가 있었는데, 요와 순을 거쳐 우리 지역이 순이 치세하는 지역으로 병합되면서 우리의 문화가 중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익의 『성호사설』에서 '단군의 시대'는 고유한 문명—위의 갓의 예처럼—을 가진 시대이지만 여전히 미개했고, 순의 땅으로 병합되면서 중국 문명과 동일해졌다는 의미이다. 즉 '단군의 시대'는 아름다운 고유의 문명을 가진 시대이면서 동시에 미개한 시대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단군의 시대를 유교의 유토피아인 '요순시대'에 편입시켜 보려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그 요순시대의 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했다는 의식도 동시에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성호사설』을 보면 "청구에는 단군이 다시 내려왔네(靑丘檀再降)"라는 팽윤의 시가 당대(영조 시기)에 유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28], 이를 통해 당대 지식인들이 일부는 '조선의 이상사회'로 '단군시대'를 상상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요컨대, 이수광의 『지봉유설』이 단군의 역사와 치세 지역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려 하고 그 내면에 단군시대에 대한 문명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면, 이익의 『성호사설』은 이수광의 실증적 고찰은 계승하면서 동시에 퇴계와 조식을 최고의 스승이라고 간주하는 성리학자로서의 자의식이 강화된다. 단군의 시대를 문명의 시대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미개한 문화의 시대라고 보는 등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 아래 단군의 시대를 요순시대에 편입시키려 하고 요순시대의 역사적 한 자락을 우리가 담당했다는 의식을 보여준다. 즉 이익은 여전히 중화문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가 미개한 문명에서 그들과 동일한 문명국가로 나아

27) 李瀷, 「髮髟」, 『星湖僿說』 6 萬物門.
28) 李瀷, 「蔡學士詩」, 『星湖僿說』 28 詩文門.

갔다는 태도를 이론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오주연문장전산고』속 단군

이규경(李圭景, 1788-1863)이 쓴『五洲衍文長箋散稿』는『지봉유설』과『성호사설』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백과사전 가운데 하나이다. 60권 60책 거대한 1,417개의 항목을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조선사회 내부에 축적된 학문적 성과와 함께 청나라와 서양학문 수용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단군'에 대한 언급은 15차례 이상이다. 인용의 분야는 크게는 6개의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선 역사서, 국가와 국호, 경세, 문화(우리나라 옷과 장식), 술수학 그리고 '단군고사'에 관련된 논의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단군 논의의 특징은 첫째 조선의 국호와 관련된 단군 논의와 실증적 역사서에 대한 중시 태도이다. 총 항목 가운데 15개의 단군 인용 가운데 가장 많은 6개 항목은 모두 조선의 역사와 고대국가 관련된 국호 문제이다. 이 국호를 설명하면서 이규경은 "우리나라를 배척할 경우에는 九夷, 六部라 하고 예우해 줄 때는 君子國, 禮義邦, 小中華라 한다"고 하면서 중국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기도 한다. 이때 단군은 '九夷'의 첫 번째 왕이었고, 동쪽의 단군이기에 '震檀'이라 한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또한 단군을 다룬 우리나라 역사서가 새롭게 중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東國全史重刊辨證說」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서를 '실증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고, 허황되고 괴이하다'고 하는데, 중국 고대사를 다룬 서적들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제대로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새롭게 간행한다면 역사서로 쓸 만한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檀君의 九夷 사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송대 역사서『皇王大紀』와 청대 역사서『繹史』를 참고할 만하다고도 말한다.[29] 그러나 행간에는 우리나라 역사서가

29) 李圭景,「東國全史重刊辨證說」,『五洲衍文長箋散稿』經史篇. "世之論者, 以東方事蹟, 爲無徵, 爲荒怪, 爲鄙穢. 不足道者, 此非通論. 予獨以爲不然, 中國上世之蹟, 比我東邃古之事, 奚異於以五十步笑百步耶. 與其湮沒無傳, 無寧仍舊修補潤色, 以備東史之無稽, 則雖有詳略之不同, 猶有可徵者也. 若自慊無徵而不足爲史, 棄

허황된 것이 많고, 실증적으로 고찰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미가 숨어있다.

둘째는 단군에 대해 인용을 하면서 우리의 고대사가 오랑캐 역사로 보여질 수 있는 지점들을 배격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때 오랑캐인가 아닌가는 철저히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檀箕爲國號辨證說」에서 우리나라 국호를 '단군' 혹은 '기자'로 불리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두 개의 국호는 오랑캐의 풍속이지 중국의 문화에서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더불어 조선의 역사를 편찬하는 사람들이 실증적 사료를 고찰하지 않고 썼다는 것을 비판한다.[30]

셋째, 이익의 『성호사설』를 계승 비판한다는 점이다. 이규경은 이익의 『성호사설』을 계승해서 단군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면서도 이익과 견해가 같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다. 단군과 기자 관련해서 동의하는 견해의 예를 살펴보면, "箕子가 동쪽에 봉해지자 檀君의 후손이 당장경으로 도읍을 옮겼다. 당장경은 文化縣에 있는데 여기서도 단군이라 호칭하였으니 檀은 곧 국호이다."라는 부분이다. 이 말은 「三韓始末辨證說」에서도 동일하게 인용하고 이치에 맞다고 동의한다.[31] 그러면서 동시에 비판하는 점에 대해서도 말한다. 이규경이 비판하는 이익의 『성호사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기자가 封爵을 받아 子爵이 되었으니, 箕도 곧 국호이다. 생각건대, 별자리의 위치를 보면 箕星이 그곳[동쪽]에 해당하므로 국호를 箕라 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이란 漢四郡의 통칭으로서 마치 중국을 齊州라고 이른 것과 같으니, 아마도 歷代의 국호는 아닌 듯하다.[32]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이규경은 위의 『성호사설』을 인용하면서, 조선이

而不取, 漸至散亡遺佚, 永爲無徵, 則後世從何得其事實而徵信者乎. 檀君前九夷之蹟, 雖無可稽, 而若溯以上之於鴻荒草昧之世, 宜有考據, 則皇王大紀與繹史在焉. 猶有可采矣." 여기서 말하는 『皇王大紀』는 宋대 胡宏이 반고부터 주의 난왕(周赧王)까지를 아울러 쓴 중국의 2000년간의 역사서이고, 『繹史』는 청대 馬驌이 편찬한 『역사서』이다. 이 두 서적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여러 차례 중국의 역사서로서 높이 평가받는다.

30) 李圭景, 「檀箕爲國號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31) 李圭景, 「三韓始末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32) 李圭景, 「檀箕爲國號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箕星이 있는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자'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이익의 말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 나는 상고하건대, 조선이 箕星의 위치이기 때문에 조선에 봉작되어 기자라고 칭하게 되었다는 성호[이익]의 말은 옳지 않은 듯하다. 중국의 史策 및 經傳에서 箕子와 微子를 모두 商나라 시대의 인물로 일컬어 놓았다. 『書經』「微子之命」에 의하건대, 미자가 周나라로부터 대체로 나라만 받고 작호는 받지 않았으니, 나라를 받은 것은 선왕의 제사를 단절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으며, 작호를 받지 않은 것은 주나라에 신하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절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종신토록 微子라고 칭하였던 것이다. (…) 기자의 廟庭碑 注에, "기자의 이름은 須臾인데 은왕실에서 箕땅에 봉해졌기 때문에 기자라 호칭한 것이다." 하였으니, 기자에 대해 '箕'는 나라 이름이고 자는 작호이다.' 한 말이 어찌 殷代에 받았던 명확한 증거가 아니겠는가.33)

위 인용을 요약하면 중국의 자료를 고찰해 볼 때 箕子와 微子는 모두 상나라의 인물들인데, 미자의 경우 주나라로부터 나라만 받고, 신하 노릇은 하지 않았는데, 은나라의 제사를 받들기 위해 절개를 지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書經』의 「洪範」을 보면 기자는 이미 은 왕조로부터 확실하게 작호를 받고 봉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익과 이규경의 '기자'를 둘러싼 미묘한 이해의 차이는 이익은 '은나라 사람 기자가 단군 말기 이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봉작을 받았다'는 입장이라면, 이규경은 '기자가 이미 공식적으로 은나라 왕실로부터 명확하게 봉토와 작호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편의 내용 대부분은 단군의 국호 혹은 단군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고증하기보다는 국호로 불리는 '기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익의 견해를 반박하는 것이 더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단군 관련해서 이익의 견해를 계승하면서도 비판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규경은 왜 이렇게 한 장을 거의 할애해서 이익의 『성호사설』에 등장하는 '기자'에 대해 반박하는가? 여기서 네 번째의 특징이 있다. 『오

33) 李圭景, 「檀箕爲國號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愚按星湖之以朝鮮直箕星, 故封於朝鮮. 稱箕子者, 恐非是. 中國史策及經傳, 以箕子微子竝稱於商代, 而微子之命, 微子之於周. 蓋受國而不受爵, 受國以存先王之祀, 不受爵以示不爲臣之節, 故終身稱微子也 (…) 箕子廟庭碑注, 箕子, 名須臾, 以殷室封於箕, 號箕子, 其曰箕子者, 箕國名, 子爵. 豈非殷時所受之明論乎."

주연문장전산고』에서의 단군 인용은 단군시대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단군시대 말기, 기자로 인해 우리나라에 비로소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소중화(小中華)'적인 견해를 펼치기 위한 활용이다. 위의 이익의 견해대로라면 箕子는 처음에는 봉작을 받지 못한 채 단군 말기 그 지역을 기웃거린 사람이 되고, 이규경의 견해대로라면 기자(箕子)는 은 왕실에 의해 공식적인 봉작을 받은 사람이 된다. 전자의 경우, 단군 말기는 은의 세력권에는 있었으나 여전히 단군의 세력이 강했다는 의미일 수 있고 또한 기자가 공식적 직함도 없이 단군 지역에 있었던 것이 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이미 단군이 다스리던 지역이 은 왕실의 권역에 명확하게 예속되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기자의 권위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서에 '기자' 관련 모호한 말들이 많다고 비판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변호한 이유는 '단군'의 시대를 은 왕실의 공식적 치세 지역에 포함시키고 '기자'에 의해 다스려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것이 바로 실증적 자료를 통해 '단군'보다는 '기자' 규명에 자신의 주장을 펼친 이유와도 상통한다.

따라서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단군'은 '기자'와의 관계에서 자주 논의된다. 「子事實墳墓辨證說」은 '기자' 관련된 사실과 사당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했는데, 특이한 점은 이 편 안에 기자의 사당을 논한 논설은 있지만 '단군'의 사당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지점이다. 그 가운데서 기사 사당에 인용된 '단군'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明의 사신 董越의 『朝鮮賦』를 보면 "동방에 기자의 사당이 있는데, 나무로 신주를 깎아 안치하고 거기에 이름 붙이기를 '朝鮮後代始祖'라 하였으니, 이는 대체로 국가를 개창한 단군을 우선으로 높임과 동시에 단군의 遺緖를 계승한 기자 또한 숭앙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다.[34] (…) 내가 생각건대, 『서경』「홍범」에 '微子之命'은 미자의 옛 작호로 편명을 명명한 것으로 보아 남이 지키고 있는 절조를 억지로 빼앗지 않은 무왕·주공의 어짊을 알 만하다. 箕子가 주나라에 조회했다는 설이야말로 千秋를 우롱한 말이라 할 만하다. 삼가 이렇게 변증한다.[35]

34) 李圭景, 「論史箕子事實墳墓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이 편은 중국의 사료와 한국의 사료 가운데 '기자'에 관련된 사실과 사당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글이다. 그는 다시 한 번 '기자'와 '미자'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은나라의 봉작을 받고 절개를 지켰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동시에 주나라가 또한 이들에게 조회를 강요하지 않은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이규경이 논의하려는 '기자'에 대한 칭송은 '은나라에 대해 지킨 선비의 절개' 그리고 이 절개를 바꾸려 하지 않은 '주 문화의 관용의 위대함'이다. 당시 그는 우리가 계승해야 하는 가치를 단군조선이 아닌 기자조선이 담고 있다고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다섯째, 단군에 대한 비하와 기자에 대한 존숭적 태도가 드러난다. 이러한 점은 『오주연문장전산고』가 60권 60질의 거대 백과사전임에도 불구하고 단군에 대한 논의가 『성호사설』 및 기타의 백과사전과 비교해 내용상 소략한 원인이다. 「祕緯圖讖辨證說」에서 참위설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이 선인의 비조가 되었는데, 마침내 기자가 동쪽으로 와서 홍범구주로 다스리게 되었다'라고[36] 말한다. 「紀綱名分辨證說」에서는 '단군이 최초의 임금이었지만 기자 성인이 교화를 시작해서 예악으로 다스렸다'라고[37] 한다.

그러나 단군에 대한 폄하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백과사전이라는 특징을 잘 살려서 다양한 단군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견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중국의 역사서와 우리나라의 역사서를 고찰한 항목(「古史通史通鑑綱目諸家史類史論中原記東事東國諸家史類辨證說」)에서 이규경은 조선의 역사서 가운데 이만운이 찬한 『紀年兒覽』이 단군으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年紀를 작성했다고 소개한다. 또한 한치윤(韓致奫)의 『海東繹史』가 우리의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으며, 서거정의 『歷代年表』가 단군에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3,811년의 사적을 열거하고 연대를 주석했다고

35) 李圭景, 「箕子事實墳墓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論史篇. "皇明詔使董越《朝鮮賦》, 東有箕祠, 禮設木主, 題曰朝鮮後代始祖. 蓋尊檀君爲其建邦啓土, 宜以箕子爲繼世傳緖也. 墓在兎山雒城乾隅, 有兩翁仲, 如唐巾裾, 點以斑爛之苔蘚, 如衣錦繡之文襦. (…) 此外, 未知有何書也. 愚以爲於洪範之書, 十有三祀, 微子之命, 以其舊爵名篇, 而知武王周公之仁, 不奪人之所守也. 箕子朝周之說, 可謂誣罔千秋者也. 謹爲辨證焉."

36) 李圭景, 「祕緯圖讖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技藝類. "我東則圖以檀君時神誌, 仙人爲鼻祖. 箕子東來, 九疇攸敍."

37) 李圭景, 「紀綱名分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治道類. "檀君首出, 箕聖肇化, 禮樂之治."

소개하고 있다.[38]

요컨대,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단군 인용의 특징은 첫째, 조선의 국호와 관련된 단군 논의와 실증적 역사서에 대한 중시 태도이다. 둘째는 단군에 대해 인용하면서 우리의 고대사가 중화주의 관점 안에서 오랑캐의 역사로 보여질 수 있는 지점들을 변론한다는 점이다. 셋째, 이익의 『성호사설』을 계승 비판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익이 '순임금을 동이족으로 보고 간접적으로 동이도 중화문명에 기여했다'는 정도의 주체적인 해석조차 보이지 않는다. 넷째,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의 단군 인용은 단군시대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단군시대 말기, 기자로 인해 우리나라에 비로소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小中華'적인 견해를 펼치기 위한 활용이다. 다섯째, 단군에 대한 비하와 기자에 대한 존숭적 태도가 드러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의 백과사전 4종, 즉 임란 이전 출간된 『대동운부군옥』과 임란 이후 출간된 『지봉유설』, 조선 후기 『성호사설』과 『오주연문장전산고』를 중심으로 당대 지식인들의 '단군'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들의 특징 등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백과사전'이라는 당대의 보편 지식 안에서 '단군'이 어떠한 이미지로 상상되고 소비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기회이며 동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주목할 수 있는 계기이다. 또한 단군과 관련된 일반적 시각 가운데 과연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단군'에 대한 의식이 변화했는가에 대한 하나의 접근이 될 수도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6세기 출간된 『대동운부군옥』의 '단군'은 중국과는 다른 독립국가로서의 자의식을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사전 용례로서 '단군고사'가 적극적으로 쓰였으며 조선 전기의 관찬 역사서와 지리서뿐 아니라 명나라

38) 李圭景, 「古史通史通鑑綱目諸家史類史論中原記東事東國諸家史類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史籍總.

에 보낸 『응제시』 등을 통해 인용했다. '단군요청설'의 주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가 '민족위기 상황에서 단군을 요청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상의 연구에 의하면 임란 이후 출간된 백과사전보다 임란 이전의 『대동운부군옥』에서 중국에 요임금이 있다면 우리는 단군이 있다는 문명국가로서의 강한 자의식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수광의 『지봉유설』이 단군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계기를 드러내고 단군시대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준다면, 이익의 『성호사설』은 퇴계와 조식을 최고의 스승으로 간주하는 성리학자가 단군의 시대를 문명과 미개의 이중적 태도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단군의 시대를 요순시대에 편입시키려 하고 우리가 미개한 문명에서 중화문명으로 진화했다는 논리를 확대한다.

셋째,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단군은 단군시대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단군시대 말기 기자로 인해 우리나라에 비로소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小中華'적인 견해를 펼치기 위해 활용된다. 그 안에는 단군에 대한 비하와 기자에 대한 존숭적 태도가 드러난다.

우리는 서론에서 '단군기원설'과 '단군요청설'의 연구경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들의 통행시각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의 '백과사전'에 드러난 단군 지식정보 연구를 활용해서 단군의 민족주의 관련 통행 시각들을 논한다면, '조선시대'는 단군조선에 대한 존중이 지속되지도 않았고, '기자조선'에 대한 논의만이 우세하지도 않았다. 또한 '단군'의 존숭 혹은 숭배가 강화되는 지점은 '민족적 위기'라고 불리는 '임진왜란' 이전 이후와도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조선 중기 이후 주(周) 문화에 편입하려는 지식인들의 소중화(小中華) 의식이 확장되면서 '단군'은 '기자'의 성스러운 교화의 시작을 설명하기 위한 부차적 소재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동운부군옥』과 『지봉유설』의 단군 지식정보는 '단군시대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준다면 『성호사설』과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단군 지식정보는 우리가 미개한 문명(단군조선)에서 문명국가(기자조선)로 나아갔다고 소중화적 태도를 확대한다.

▮ 참고문헌

權文海, 『大東韻府群玉』,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동국문화사, 1958.
李睟光, 『芝峯類說』, 을유문화사, 1994.
李 瀷, 『星湖僿說』, 현대실학사, 1998.

권문해, 『(역주)대동운부군옥』, 남명학연구소 경상한문학연구회 역주, 소명, 2003.
김영선, 「한국 유서의 서지학적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9.
김인중, 「민족주의의 개념」, 『프랑스사연구』 제22호, 한국프랑스사학회, 2010, 295-322면.
신용하, 『신채호의 사회사상연구』, 나남, 2004.
신채호, 『조선상고사』, 종로서원, 1948.
안호상, 『배달 동이겨레의 문화와 역사』, 배달문화연구원, 1971.
에릭 홉스봄,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강명세 역, 창비, 1993.
이규경, 『(국역)오주연문장전산고』, 민족문화추진회 역, 민족문화추진회, 1982.
정영훈, 「안호상과 일민주의의 단군민족주의」, 『단군학연구』 제38호, 단군학회, 2018, 223-272면.
조동걸,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 연구』, 지식산업사, 1989.

E. J.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The Press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1990.
Liah Greenfeld,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Abstract】

Representation of *Dangun* in Encyclopedias of the Joseon Dynasty

Kim, Youn-G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ntempl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ception toward Dangun (檀君), the legendary founding father of Gojoseon, by the intellectu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relevant discussions based on four types of encyclopedias of the Joseon Dynasty—*Daedongunbugunok, Jibongyuseol, Seonghosaseol, and Ohjuyeonmunjangjeonsango*. This study is the opportunity to understand how Dangun has been imagined and consumed in general knowledge of the era, encyclopedia, and one type of approach toward how the perception toward Dangun changed in the ethnic crisis situation,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following are the study results. First, Dangun in *Daedongunbugunok*, which was first published in the 16th century, played the role of expanding self-awareness of an independent state different from China. In comparison with the encyclopedias published after the invasion, *Daedongunbugunok*, which was published prior to the invasion, has strong sense of identity as the civilized state with Dangun, equivalent to Emperor Yao in China. Second, while *Jibongyuseol* by Lee Soo-kwang provides the occasion to positively consider the history of Dangun, *Seonghosaseol* by Lee Ik shows that the Confucian scholars who regarded Toegye (退溪) and Cho Sik (曹植) as the best teachers viewed the era of Dangun based on dual attitude between civilization and savage. Third, Dangun in *Ohjuyeonmunjangjeonsango* did not try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ngun era but was used to promote the idea 'Sojunghwaron (小中華論)', which means that civilization began on the Korean Peninsula owing to Gija Joseon. Under the premise that the organization of ethnic concept is the product of modern times, this study will be an opportunity to newly reflect on the general view that ethnic crisis strengthened worship toward Dangun and expanded discussion on Dangun.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Ethics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encyclopedia, *Dangun* (檀君), nationalism, *Daedongunbugunok* (大東韻府群玉), *Jibongyuseol* (芝峯類說), *Seonghosaseol* (星湖僿說), *Ohjuyeonmunjangjeonsango* (五洲衍文長箋散稿).

접수일: 2019.03.31. ‖ 심사일: 2019.04.10. ‖ 게재확정일: 2019.05.17.